

# 손쉬운 생분처리의 한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취재/김용화 기자

**채란** 양계 산업이 앞으로 가야할 방향을 논하는데 있어 단편적인 지식으로만 어 떤어떠한 길로 가야 한다고 결론 을 내려서는 결코 안된다.

마치 규모나 키워 콤팩트케이지 시설을 갖추고 양계업을 한다고 해서 성공했다고는 생각치 않는다. 그것도 선진 외국에서 운영 하는 방식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여러가지 면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요인 이 된다.

경제개념상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생산비를 절감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기계를 도입하므로 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요한슨(I>Tohansson 1976)의 “자본가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에 대한 대답이었다.

이와 같은 단계별 개념정립 없 이 생산비를 절감시키려는 목적이 아닌 기계화나 이윤이 오히려 낮 아지는 생산비 절감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본의아니게 이 같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가 종종 있다.

공극적으로 생산비를 최소로 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공정에 주안 점을 두게 되면 저절로 이윤은 극 대화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생산과정상의 한 부분을 대체시키기 위해 기계화를 도입 한다면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늘의 채란양계산업이 국제경쟁력제고라는 측면에서 열세에 몰 려 있고 또한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제공자라는 입장에서 법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게되자 갑자기 경영면에 가슴을 억압당하는 것 처럼 곤란을 겪게 되는 것이라 보 여진다.

과거 농장에서 오로지 닭만 키 우던 시절에서 규모가 점차 커지 게 되자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가격등락에 대응하는 일이 생겨나고 다시 불황에도 견디어 낼 수 있는 생산비절감이 부각되고 이어 농장 경영상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계분 으로 제약을 받는가 하면 외국상품과 국내 소비자를 놓고 판매경쟁을 해야하는 처지에까지 와 있다.

그렇다면 요즘 채란계 농장에서 계분처리 상황이 어떤지 알아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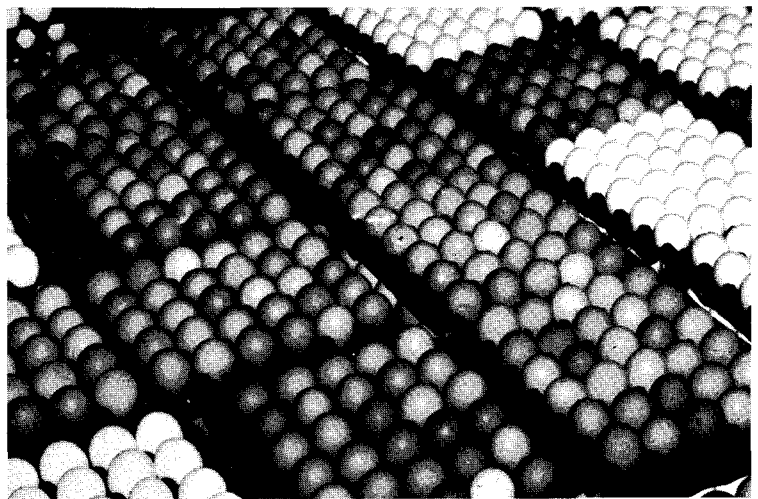
채란양계산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계분공해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다.

양계산업은 환경보전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닭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있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규제대상이 되고 있다.

닭·오리사육시설의 경우 사육시설의 면적이 1,000㎡(약300평) 이상의 시설이 이에 해당하게 되고 특별청소지역(행정구역상 읍 이상인 지역 대부분 포함)에서는 닭 사육시설의 면적이 500㎡의 시설이 포함되고 있다. 가축의 사육수수로 규제하지 않고 축사면적으로 규제하는 이유는 사육수수가 가변적이고 관리가 어려워 일정 기준설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6가지 시설공법이 명시되어 있는데 양계 시설에서는 퇴비화 방법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닭, 오리의 경우에는 분과뇨를 분리하는 전처리 과정이 필요없으며 발생된 분을 간단히 건조, 저장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하였다가 비료로 사용하거나 매립처분하면 된다. 건조시설의 크기는 사육시



계란을 생산하는 일 못지않게 계분처리도 중요해지고 있다.

설의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사육시설의 면적 100㎡당 2.0㎡ 이상이어야 한다.

양계의 경우 다른 축종에 비해 축분처리, 규정이 대폭 완화되어 있으나 계분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첫째가 퇴비로 만들어 놓아도 판로처가 제한되어 있어 자칫 처리 비용도 못 건지기 때문에 아예 생산자는 계분처리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는 대부분 계사가 좁아 계분건조장치를 만들 부지가 없거나, 건조장치에 투자할 자본이 없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기계설비를 했다기 보다 모자라는 인력난을 보충한다는 생각 아래 대부분의 채란양계농장에서 스크레퍼를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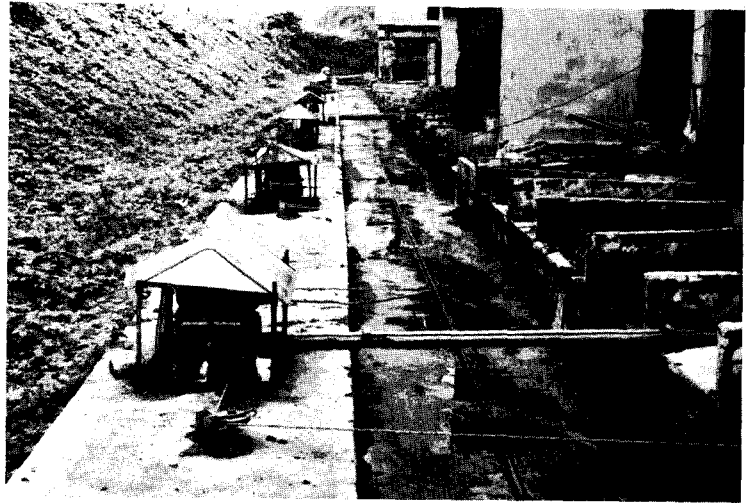
처음에 7~8백만원씩 들여 선드

라이어까지 설치하면 계분치리는 완전해결될줄 알았으나 계절별 기온차, 계사내에서의 계분중 수분함량을 조절치 못하여 당초의 기대는 어긋나고 원초적인 인력난을 대체하여 생분을 긁어모으는 작업밖에 하지 못하자 다시 철거하는 사례가 흔히 나타나게 된 것이다.

성계 1만수가 배설하는 계분은 1일 약1톤이 약간 넘는다. 10만수 정도의 채란농장의 경우 약 8톤 정도의 계분이 생산되는데 이를 처리하는데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채란농장의 실상은 닭이 배설한 계분을 수분건조 없이 계사 밖으로 그대로 끌어내어 일단 한곳에 저장만 하고 있다.

농장이 좁아 건조장 및 보관 창고를 갖출 수가 없으며 높이가 일



계사간 열이 일정하고 높이가 같아야 계분처리가 용이하다.

정치 않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다 아직도 U자형 급수기가 많아 연변이 심해 계분발효에 적당한 수분함량 60~65%가 맞추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계분을 발효건조시키기 위

해 한곳에 모아봐도 발효는 커녕 그대로 굳거나 질죽한 상태에서 더디게 건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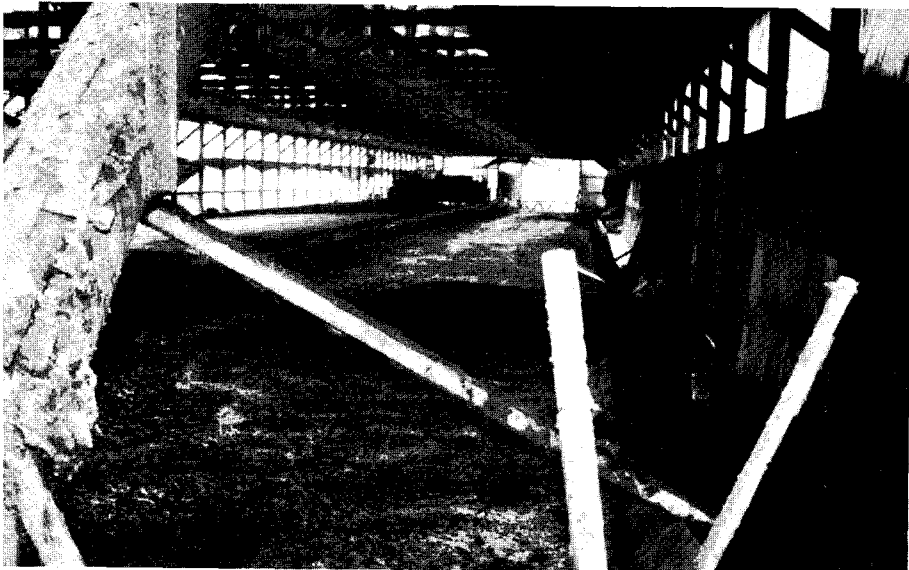
매일 쏟아지는 계분으로 무한정 건조기에 보관할 수 없게되자 계사주변에 야적을 하게 마련이다.

최근의 계분사용처분제도 경기도 일원에서는 원예단지가 점차 줄어들자 충청도이남지역으로 바뀌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직도 호남이나 영남지역에서는 생분도 돈받고 파는 곳이 있는가 하면 경기도 지역에서는 6만수 규모 농장의 경우 톱밥 등을 섞어 수분조절을 해주는데 인건비 100만원 투자하여 30만원받고 계분처리업자에게 넘기고 있는 곳도 있다.

생산자가 직접 계분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가 밀리면 농장내에 쌓아놓게 된다.

보관창고가 없는 농장이 대부분



계분은 수분조절이 안되면 발효가 일어나지 않는다.



계사주변에 생분을 그대로 아적하고 있다.

이어서 비가 오면 계분이 흘러내려 농작물에 피해를 미친다는 보상청구와 함께 냄새 및 파리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지역 주민들과 마찰까지 빚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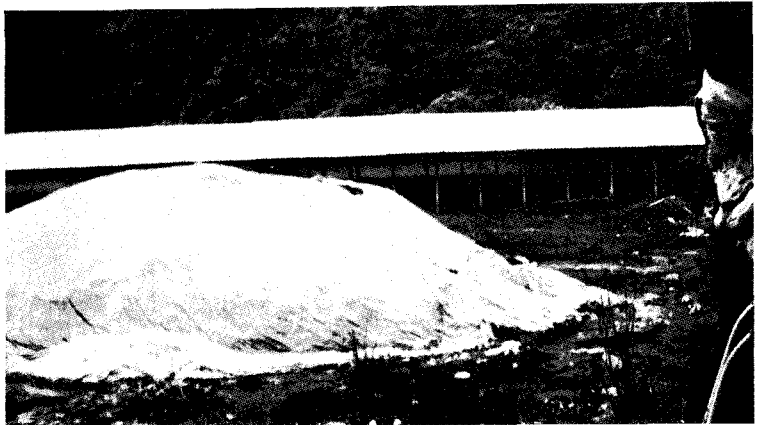
실제로 H종계장은 지난 7월 장마에 계분이 이웃 농토에 흘러 들어가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을 야기해 일간 신문에 크게 보도되어 곤혹을 치른 일도 있다.

많은 채란농장이 계분을 비료화할 수 없는 곳이 현실이다. 발효에 필요한 수분조절이나 용량을 고려치 않아 그나마 시설하던 계분발효시설도 진전을 보이지 않고 기설치된 기계도 다시 철수시키고 이상적인 기계가 나오기를 바라만 보고 있다.

외국의 경우도 계분처리에 대한 단속이 매우 강화되어 있다. 이점을 고려하여 그나라의 특성에 맞는 케이지 및 계분처리시설을 하여 다소는 우리보다 효율적으로

양계업을 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개념정립을 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기계 개발 및 시설기종 선택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아울러 채란양계인의 사고방식도 계분처리도 양계업의 한 분야로 인식 버리는 처리방식에서 재활용으로 소득을 증대시키는 차원으로 발전시켜가야 할 것이다.



건조된 계분을 농장안에 쌓아두고 있는 곳이 의외로 많다.



아적한 계분이 비가 내리자 함께 섞여 흘러내려가고 있다.